

무관심의 연못가에 서서

캐로라인 D,타운스, OFS, JPIC 추진위원

여러분들과 어떤 의견을 나누면 좋을가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는 나에게 요한복음 5 장에 나오는 병든 남자의 이야기를 떠올려 주시었습니다. 그는 38 년간 절름바리로 살아가면서 베데스타 연못가에 앉아, 천사가 나타나 연못을 흔들 때, 누군가가 와서 그를 연못 속에 던져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사람에게 가볍게 물으셨습니다. “진정 네가 낳기를 원하느냐?” 38 년을 기다린 그에게 말합니다. 그는 그 동안 적어도 기어서라도 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는 써야하지 않았을 까요?. 그런데 그는 주님께 대답 대신에 변명만 합니다. 이 병자는 마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었다는 듯, 그가 그렇게도 원하는 기적의 축복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려는 태도였습니다.

자!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여러분도 연못가에 서서 기다리고만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시지요? 여러분은 프란치스칸 이시지요? 여러분은 하느님을 믿으시며 사랑 자체이신 우리 하느님의 자비심을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어째서 연못가에 앉아서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주신 일을 다른 사람이 와서 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에게 오시어 당신이 하느님께 봉사하겠다는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절실한가고 물으신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연못가의 병자가 한 것처럼 당신도 변명이나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옆 사람이 할 일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아랫 사람에게 떠 넘기고 책임지지 않는 것 또한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세라핌적 사부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피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떠 맡기려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 주십시오”

당신의 일상생활 안에서 당신의 몫을 하지 않으면서도 변명이나 하는 버릇의 정도가 어느 지점까지 와 있는지 돌아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예수님과 프란치스코를 따르는 삶이란 비폭력적인 삶과 자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프란치스코로서 아주 최소한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비록 그런 대우를 받을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믿어지든 아니 든 간에, 그들에게 애정을 보이고 자비심을 베푸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또한 우리는 자매이며 어머니인 땅에게도 자비심과 애정을 보이려는 불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지구를 돌보고 피조물을 대함에 있어 사랑과 존경심을 가지고 대 하라는 뜻으로 보여줍니다. 교서(Laudato Si)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 환경과 자연환경이 다같이 파괴되 가고있습니다. 인간과 사회의 파괴에 연관된 원인들을 알아 처리지 못하고는 환경파괴와 맞서 적절하게 싸워 갈 방법은 없습니다.” 그대는 피조물들을 보살피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정부를, 대기업을, 심지어 이웃 사촌들을 비난하면서 자연의 훼손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만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연못가에 서서 불평이나 하는 것인가요?

연못가의 병자와 꼭 같이, 여러분들도 하느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이건 간에, 그 사명을 이루기에 필요한 요건이 무엇이건 간에 그와 꼭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르심을 받아드릴 준비가 얼마나 충실히 되어있나요? 여러분은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위하여 마땅히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성심껏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당신은 이 세속에 살면서 무의식 중이라도 폭력에 연관된 일에 걸려있지는 않은지요? 당신은 교회나 형제회의 어떤 사람에 대한 혐담을 하신적이 있지는 않은지요? 연못의 물이 솟아 오를 때, 형제회의 회원들이 정의를 위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계신지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을 위하여 그 일을 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와싱턴 D.C.에서 열었던 금년도 Ecumenical Advocacy Days 의 주제는 “모두 소리 높여 외치라! 인종차별! 계급차별! 권력의 남용!, 그리고 세부 프로그램에서는: “이 나라 안의 유색인종들은 보이지 않는 억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알려지기도 하지만, 흔히 알려지지 않은 채

흑인들이 매년 경찰에 의하여 사살되고 있으며; 이민자들도 자주 억압 속에 잘못된 것 없이 희생당하고 있으며; 뜻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건에 불만을 터뜨리며 약자들을 돕기 위한 단결을 호소하고 있지만 눈총이나 압박 그리고 폭력에 의하여 그들의 활동이 어려움에 막히고 있음이 사실이다.”

당신은 무관심의 연못 옆에 서 있으면서 - 못 본체, 억압, 아니면 폭력을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은가요? 자주 주위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기도가 첫 걸음이지요. 하지만 기도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기도가 당신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당신의 발이 움직일 뜻이없다면 하느님께 인도해 주십사 하고 청하지도 마세요! 천리 길도 한 걸음으로 시작합니다. 첫 발이 여세를 몰아갑니다. 당신의 작은 첫 발자국이 그날 당신이 한 헌담이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알려주고, 이웃을 형제자매라 부르기 보다 “그들” 또는 “그 사람들” 이라고 부르는 분위기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며, 단결이나 심사숙고라는 말에 반대되는 분열과 결별이라는 말들이 당신의 말 속에 담겨있음을 일깨워 줄 것입니다. 대통령 후보나 또는 다른 공직자에 대하여, 특별히 사회 매개체에 대하여 헌담이나 불평을 하시나요? 그것이 프란치스칸이 취할 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폭력 사용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사람들과 당신이 다른점이 무엇인가요?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가 다 함께 노력해 보자고 제안하는 도전은 이려합니다: 기도를 하지만 눈을 크게 뜨십시오! 폭력과 무시 그리고 무관심이라는 말을 쓰는 곳에 눈을 돌리십시오. 성령께서 이러한 말들을 애정과 자비의 말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는 애정을 가지고 자비심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작은 첫 걸음을 모두 다 같이 자연환경을 향하여 내 디디어 보십시오. “제 3 세계”이라는 말을 “발전 도상의 나라”로 바꾸어 보십시오. 하느님께서서는 “하나의 세상”을 만드셨고 이 하나의 세상을 보살피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애정과 열정 그리고 자비심을 가지고 우리 모두 이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대들에게 하느님의 평화를 내리시기를 빕니다.!